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75 호 The Seungni Shinmun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새해 첫 출근날 유난히 크고 밝게 뜬 샛별

올해 뭐 좋은 일 많이 생기려나…

새해 첫 출근날(2일) 새벽 맑은 하늘에 그믐달과 그 옆에 샛별이 유난히 크고 밝게 비췄다. 정효진 씨(52세)는 이 광경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그리고 "하늘이 온통 파란데.. 유별나게 달과 그 옆 밝은 별 하나만이 반짝이는 새벽하늘"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YTN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싣고는 마지막에 올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당일 샛별을 본 많은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 별이 샛별인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저렇게 큰 별이 뭘까 의아해 하면서 촬영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올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구세주를 상징하는 샛별(그믐달 옆)이 유난히 크고 밝다/정효진씨 제공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샛별이다. 샛별은 금성이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경우인데 이처럼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른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행성인데 일년 중 한동안은 초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또 다른 때는 아침 동쪽 하늘에서 그 어떤 행성이나 별보다 늦게까지 보이기도 한다. 금성이 가장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대낮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을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 부르고,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을 '저녁별'이나 '개밥바라기' 또는 '태백성'이라고 부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샛별은 구세주를 상징하는 별

합동찬송가 84장에 "구세주는 산곡에 백합 명랑한 새벽별"이라며 구세주를 새벽별로 지칭하였다. 또한 계시록에는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계 2:28)고 예언되어 있으니 구세주가 곧 이긴자라는 이야기다.

격암유록에도 정도령(구세주)을 효성(曉星) 계명성(鷄鳴聲)으로 표현하고 있다. 격암유록은 특별히 계명성이라는 장을 따로 두어 정도령의 구원의 역사를 새가 지저귀는 울음소리에 비유하며 기록해 두었다. 또한 정도령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 출현하는데 송가전(宋家田)에서는 특히 첫 번째로 출현한 정도령인 박태선 장로에 대하여 계명성으로 지칭하였고, 박 장로는 북한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한국(남한)에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명(大命)을 지휘한다(天授大命指揮故)고 정확히 기록하였고, 첫번째 정도령인 박 장로가 싸움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 때 시시비비가 분분하니 잘못 말하면 화를 당하므로 말조심을 하는 편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대백금성효성조(大白金星曉星照)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정도령(구세주)은 죄를 벗은 위대한 존재로서 새벽별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불경 불설미륵내시경에서도 미륵불이 명성(明星)이 비출 때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처럼 각 경전의 주인공, 즉 성경의 주인공 이긴자 구세주, 격암유록의 주인공 정도령 구세진인, 불경의 주인공 미륵불을 상징하는 공통요소가 바로 새벽별임을 알 수 있다.

샛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구세주 출현한다

앞에서 정도령은 세 사람으로 출현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첫째 정도령인 박태선 장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이름을 비롯하여 많은 것이 격암유록에 예언되어 있다. 하지만 두번째 정도령과 세 번째 정도령에 대해서는 깊이 숨겨놓았다. 그것은 인류의 구세주로 출현하는 존재를 마귀 세력을 가진 자들이 죽일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새벽별(샛별)은 세번째 정도령을 감추어 놓은 상징이다. 세번째 정도령의 이름이 바로 새벽별을 뜻하고 있다. 그분은 1931년 음력 6월 28일 새벽 4시에 출생하였고, 이를 보고 외조부께서 28숙(宿) 별 수 날 새벽에 출생한 것을 보아 새벽별을 뜻하는 희성(熙星)이라고 작명을 하였다고 한다.

올해의 사자성어: 마고소양

2019년 기해(己亥)년을 맞은 직장인, 구직자, 자영업자들은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마고소양(麻姑搔痒)'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성인남녀 1천270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된다'는 의미의 '마고소양'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15.0%로 가장 많았다. 마고소양을 직해하면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 준다는 뜻이며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서울경제신문 2019. 1. 2일자에서 발췌).

신이한 현상이 일어난 2019년 새해, 예년과 다르게 희망찬 사자성어를 택한 국민들에게 올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마음인가?

어떤 스님과 일반인의 대담 중 인간관계가 마치 거래처럼 손익을 따져서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에 나 자신 또한 고쳐야 할 점이라고 느껴져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이 거래의 마음, 내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상대를 좋아했으면 상대로부터 준 이상으로 받아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고받음에 손익을 따지는 마음, 이런 거래의 마음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사회에서는 작게는 친구관계에서 회사의 상하관계까지 거래의 손익 관계의 마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꽃을 보고 기분 좋게 느끼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우리 마음도 활력을 얻게 되듯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인간사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비결이며, 상대에게 조금 이익을 주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을 때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의 교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섬기는 마음과 보시의 마음, 봉사하는 마음과 같은 것으로서 거래의 손익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일, 나를 나타내는 일, 나를 내세우는 일을 생활 중에 철저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아온 나도 이런 거래의 마음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유율법 중에서 못마땅하게 느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왜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큰 죄인가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의 세계, 너와 내가 없는 세계인지라 미움이 일어날려야 날 수 없는 세계이므로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봤다고 미움을 일으키는 것은 하늘나라를 파괴하는 마음이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올라감이 수행자들에게는 도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미움이 나오지 않는 경지에 빨리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윤금옥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0〉

"울부짖는 호소에도 단계가 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 까닭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맡기려고 하는 것이므로 맡겨지지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내가 맡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으나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울부짖는 호소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층이 있으며 계속해서 4단계… 9단계, 10단계의 호소하는 층이 있는 것이다.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이겨야 하고 가정에서 이겨야 한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기고, 가정 식구들이 모두 진심으로 존경할 정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생활을 해나갈 때에 비로소 이긴자가 되는 것이다.*

새해를 열며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이유

인생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수많은 아픔을 겪는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깨물어도 안 아픈 자식의 죽음, 평생을 같이 살자던 연인의 죽음 등등.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은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다. 죽음처럼 허망한 것은 없다.

이런 수많은 죽음의 경험은 왜 사람은 죽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일으킨다. 또한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혹자들은 종교에 귀의하고 도를 닦기도 한다.

사람은 영생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오래 살기를 염원하며 죽음에 항거했지만 죽음을 벗어난 사람이 인류 역사이래 누구도 없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이므로 오늘날 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이고,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석가 또한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을 벗어나고자 출가하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영생을 운운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영생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한다고 믿을까 미친놈으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첨단 과학자 및 미래학자들이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는 지금 이 세상에 1000살 살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노화는 하나의 질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 커즈웨일을 위시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2045년이 되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지능의 발전 속도를 넘어서는 특이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의 발달로 영생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영생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과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일부가 고장 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장기가 고장이 날 때는 유기체로서의 육체는 수많은 신체 조직이 그 고장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지 않는 한 영생을 운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환원해서 말하면 인간의 육신이 다른 차원의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 한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에 치어도 죽지 않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으며, 불에 타지도 않으며,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상태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성불한 존재이며, 신인합일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敎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중간)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중간)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2지역 1년 만에 1등

개인 1등 이만선 장로

김혜선 2지역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은 1월 8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 12월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을 주는 시상식이 있었다.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지회장: 김혜선)
2등: 6지역(지역장: 안병천, 지회장: 석선자)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15구역(구역장: 김혜선)
*개인 1등: 이만선 장로
2등: 정수윤 승사
3등: 안경미 권사*